

사기꾼 현대제철과 거간꾼 고용노동부

한국내화 노동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

7월 현대제철 원청교섭 개시를 위해 노사가 최초 확인한 교섭대상은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당진,순천),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한국내화 노동자. 이하 '내화')였다. 하지만 이후 노사 실무협에서 현대제철은 내화 노동자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원청교섭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제철소에서 원청 정규직 노동자, 자회사 노동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정규직, 자회사,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겠다는데 유독 내화만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외하도급라고? 불법파견 소송 안해서?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이 없어서? 원청교섭을 나오겠다며 노조에 노동위원회 신청한 미공고 시정사건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현대제철이다.

내화 노동자들은 제철소 가장 열악한 곳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으며 목숨걸고 일하고 있다. 내화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현대제철이라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현대제철은 내화 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임하라.

바지사장은 원청교섭에 들어올 권한없다

추가로 현대제철은 원청교섭에 하청업체 사장들(현대제철 협력사협의회. 이하 '현대협')이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청교섭에 대한 무지 아니면 생떼쓰기다. 현대제철이 자회사노조들과 어떤 교섭원칙을 합의했던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관심도 없다. 우리에게 되지도 않는 자회사 가이드라인 쳐긋지 마라.

지금 하자게 2:1 교섭인가? 3자 교섭인가? 원하청 노사 간담회인가? 단체교섭은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한다. 원청교섭은 원청자본과 하청노조의 1:1 직접교섭이다. 우리는 수십년간 진행한 업체교섭에서 한계를 느꼈다. 하청사장들과 말이 안통하니 원청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원하청 사용자가 논의할 것이 있으면 교섭장 밖에서 따로 하라. 교섭장 너저분하게 만들지 마라. 책임전가, 핑계대기, 본질 흐리기... 안 봐도 훤히 다. 현대협은 기웃대지 말고 알아서 빠져라. 현대협은 하청교섭을 성실히 하면 족하다. 현대협은 시간낭비하지 말고 제시안이나 가져오라.

현대제철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주범은 말갈지도 않는 조건을 거는 현대제철과 되지도 않는 흥정을 붙이는 노동부다. 따져보자. 왜 원청교섭에 하청사장들이 들어와야 하는가? 왜 한국내화 노동자는 원청교섭 당사자가 아닌가? 현대제철 자본이 놓는 어깃장은 교섭원칙 수준이 아니라 원청교섭에 대한 본질적인 훼손과 도전이다.

노동부, 확실하게 하든가. 손 들고 빠지든가

노동부가 현대제철을 원청교섭 1호 사업장으로 만들고 본인들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꿈은 이미 날라갔다. 이제 노동부의 과제는 본인들이 만든 판인 노사정 협의체를 수습, 정리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7월 노사정 협의체 1차례 만들어 온갖 생색은 내놓고 현대제철의 땡깡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노사가 알아서 정리하기를 기다리다가 둘 중 하나가 양보하면 또 다시 노동부의 성과라고 포장할 속셈이다.

현대제철은 노동부 말을 듣지 않는다. 노동부는 원청자본을 강제할 실력과 의지가 없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부는 양쪽 오가며 서로 양보하라고만 할 것인가? 노조가 양보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노동부의 원청교섭 원칙은 무엇인가? 노조 주장에 틀린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노동부는 현대제철을 제압하라. 현대제철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붙히게 하라. 교섭장에 먹살 잡고 끌고 나오라. 그럴 능력 없으면 빨리 고백하고 판에서 빠져라. 우리가 현대제철과 담판 짓겠다. 대신 노동부는 책임을 면치 못한다.

교섭은 흥정이 아니다. 투쟁으로 돌파한다

8월 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원청교섭 내용은 한 글자도 없다. 8월 19일 충남지부장과 비정규직 동지들이 만난 천안지청장은 아무런 이후 계획도 내놓지 못했다. 원청교섭을 방해하는 온갖 사기꾼, 거간꾼들이 곳곳에 있어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

6월 24일, 7월 15일 두 차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전초전일 뿐이다. 8월 26일 세 번째 파업은 원청 자본과 고용노동부를 동시에 타격한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대제철은 정규직노조 임단투가 끝났다고, 자회사노조와 원청교섭 상견례를 열었다고 한 숨 돌릴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두지 않는다. 노동부는 본인들의 시간이 끝났다고, 노동위원회에 공을 넘기고 재판결과만 기다리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경고한다. 현대제철은 조건없이 교섭장에 나오라. 노동부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 파국의 책임은 현대제철과 노동부에게 있다.